



KWC 2019

참여 국가 분석

KWC 2019는 총 18개국에서 704종의 와인을 출품하였다. 지난해에 비하면 44종이 많은 숫자이다. 이중 레드와인이 497종으로 70.59%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한국시장의 레드와인 선호는 여전한 추세인 것 같다. 이에 비해 화이트 와인은 155종으로 22%를, 스파클링은 30종으로 4.26%를 차지한다. 이밖에 아이스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 그리고 로제와인도 올해는 다양하게 출품이 되어 출품 와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KWC 2019 국가별 출품 와인수		
No	Country	참가수량
1	★★ Italy ★★	137
2	Australia	114
3	Chile	79
4	France	79
5	Spain	61
6	Argentina	57
7	USA	49
8	New Zealand	35
9	Portugal	35
10	Greece	18
11	Morocco	8
12	Georgia	6
13	Romania	6
14	Austria	5
15	South Africa	5
16	Canada	4
17	Germany	4
18	Moldova	2
Total		704

퀄리티와 대중성, 모두를 만족시킨 이탈리아 와인

2006년 KWC가 두 번째로 실시되던 그해 이탈리아 와인은 63종을 출품해 1위를 기록했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9년 이탈리아 와인은 137종이라는 숫자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한국시장에서 이탈리아 와인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와인 소비자들로부터 이탈리아 와인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탈리아 와인의 출품은 지역도 품종도 그리고 한국시장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미수입 와이너리들로 다채로운 결과를 보였다. 기존의 토스카나, 베에몬테가 주를 이룬 리스트에서 플리아의 프리미티보와 아브루쥬의 몬테풀치아노, 토스카나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카테고리들 다시 세분화 할 만큼 다양해졌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적극적인 출품이 돋보였다. 또한 토착품종의 천국인 이탈리아인 만큼 색다른 품종과 유기농,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관리된 포도밭의 인증을 받은 와인들도 눈에 띄었으며 화려하고 독특한 레이블로 시선을 잡는 와인들도 여럿 있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와인을 알리려는 이탈리아 와인 생산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도전, 호주 & 칠레

와인의 생산 지역이 크고 넓어서일까? 생산량을 따지자면 구세계 생산국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매년 다채롭고 색다른 지역의 도전을 보이는 곳이 호주와 칠레이다. 이 두 국가는 늘 순위 다툼 또한 경쟁했지만 올해는 호주가 114종, 칠레가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79종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눈여겨 봐야 할 일은 바로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KWC의 도전이다. 특히 KWC 2019에서 호주는 바로사 밸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역의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참여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예술적인 레이블, 여기에 다양한 품종, 블렌딩, 새로운 산지 등의 발전은 또 다른 만족감을 얻게 해준다. 특히 구세계의 토착품종들이 호주의 테루아에서는 어떤 새로운 캐릭터로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와인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칠레는 다소 주춤한 출품 개수이지만 참여한 모든 소믈리에들의 의견은 칠레 와인의 퀄리티로 종합해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와이너리들의 꾸준한 참여가 돋보였다. 이들 와이너리들은 한국시장에 단단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KWC를 통한 퀄리티의 재확인은 와인판매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기존의 칠레 와인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와인그룹의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칠레 와인의 참여에서 눈여겨 볼 일은 미수입 와이너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칠레 와인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다 독창적이고 세련된 와인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KWC를 통해 베스트 칠레를 수상하였던 비나 라 로사(Vina La Rosa)나 수르 발레스 와인 그룹(Sur Vales Wine Group)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꾸준한 참가, 평준화된 퀄리티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

프랑스 와인은 KWC에 매년 꾸준한 참여로 그들 와인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이번 KWC 2019에서는 보르도, 부르고뉴를 떠난 다른 지역의 와인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이는 한국와인시장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미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프랑스의 랑그독 루시옹과 론 지역의 와인이나 AOC에서 벗어났지만 평준화된 품질과 가성비를 갖춘 밴드 페이지의 와인들이 참여가 돋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밴드 페이지의 와인들은 따로 카테고리를 마련할 정도로 참여수가 많았다. 이미 벌크와인의 생산이라는 딱지를 떼고 한국시장에 가격과 수입량으로 선두자리를 쟁하고 있는 스페인은 올해도 61종의 참가로 KWC 2019를 빛내주었다. 이번 스페인 와인은 기존의 템쁘라니요를 위시한 레드

품종의 일색이던 리스트에서 알바리뇨라는 화이트 품종의 색다른 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변화처럼 다양한 까바의 변신이 돋보였다. 이밖에 매년 말베크데이를 통해서 말베크 품종의 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안정적이며 평준화된 퀄리티의 말베크를 지난해와 비슷한 개수로 출품하였다. 2019 KWC의 미국 와인은 수입사를 통해서 한국시장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캘리포니아 지역 와이너리의 선전을 눈여겨 볼만했다.

흥미로운 와인산지 그리스 & 포르투갈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와인들은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 미지의 와인산지는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와인들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스는 몇 년 전부터 그리스엔터프라이즈,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에 와인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아시아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고 한국시장은 그리스 와인을 수입하고 있는 탄탄한 수입사들이 늘어나며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는 더한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KWC 2019에서도 그리스의 토착품종과 글로벌 품종의 블렌딩 시도는 품질의 향상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화이트, 레드, 그리고 포티파이드 와인까지 다양한 출품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KWC 2019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곳이 있다면 포르투갈 와인일 것이다. 한국시장에서 포르투갈 와인의 변화는 포르투갈 와인협회,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시음회와 세미나 또는 수입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포르투갈 와인 리스트를 통해 서서히 포르투갈의 와인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입사들이 포르투갈의 포트와인보다 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일반 스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KWC 2019에서도 이런 꾸준한 시도의 결과가 수상의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수입사 루나라는 곳을 통해 이름을 알렸던 라바스퀘이라 시라비오니에(Ravasqueira Syrah-Viognier)가 포르투갈의 베스트 레드에 선정되었고 또한 10개의 국가가 겨루는 트로피 레드의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트로피 메달을 수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바스퀘이라 레세르바 다 파밀리아 화이트(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White) 또한 7개 국가들의 화이트 와인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트로피를 거머쥐는 기쁨을 토했다. ☺



KWC 2019

멈추지 않는 도전, 미지의 산지

KWC 2019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새로운 와인 생산국들의 도전이 활발했다. 그중 와인생산의 역사로 따져보면 처음 와인양조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라는 하나 세계와인시장에서는 아직 미지의 세계로 인식되고 있는 조지아나 이곳에서도 와인이 생산되는지 재차 확인을 요하는 모로코, 그리고 몰도바, 루마니아의 참가를 들 수 있다.



GEORGIA

와인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코카사스 지역의 조지아를 와인의 요람이라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곳의 박물관 등지에서도 정리되어 있는 출토물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지아는 땅에 묻혀 있는 암포라 즉 토기로 된 항아리에 포도송이를 그대로 넣고 발효를 하며, 포도송이에 서식하는 자연 효모를 활용하는 독특한 크베브리 방식으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물론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와이너리도 많다.

요 근래 내추럴 와인, 오렌지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삼스럽게 이곳의 크베브리 양조법을 이용하는 와이너리들이 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조지아 와인의 흥미도 생기는 듯하다. 조지아의 와인산지는 카케티(Kakheti), 카르틀리(Kartli), 임메르티(Imereti), 라차-레쿠미(Racha-Lechkhumi), 구리아-심메그렐로(Guria-Samegrelo)의 5개의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산지가 카케티 지역이다.

이번 KWC 2019에 출품한 바다고니(Badagoni) 와이너리도 이곳에 속한다. 재배되는 품종은 르카트시탈리(Rkatsiteli), 엠츠바네(Mtsvane), 키시(Kisi), 사페라비(Saperavi)가 있으며 이중 사페라비가 가장 뛰어난 품질을 보인다. KWC 2019에 소개된 바다고니 와이너리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포함하여 총 6종을 출품하여 카케티안 노블 화이트(Badagoni Kakhetian Noble White)와 사페라비 리저브(Saperavi Reserve)가 각각 실버 메달을 수상하였다.

MOROCCO

북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서도 모로코는 높은 산들과 대서양의 차가운 기온의 영향으로 인해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모로코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전부터 와인의 수출국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 이후 1990년대부터 이곳에 외국인들의 와인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모로코의 와인시장은 부흥과 팽창을 경험하고 있다. 모로코의 와인 생산은 2013년 기준 약 40만he로 아랍권에서는 알제리 다음으로 큰 와인 생산국이다.

모로코는 법으로 맥주와 술을 생산할 수 있으며 무슬림 고객에게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모로코의 와인산지는 동쪽(East), 메케네스(Meknes), 북쪽 평야(Northern Plain), 엘 자디다(Et Jadida) 지역으로 나뉘며 특히 메케네스 지역에 중요한 와이너리들의 포도밭이 모여있다. 이번 KWC 2019에 출품한 레 셸리에르 드 메트네스 와이너리도 모로코의 옛 수도이자 중요 와인산지인 메크네스에 위치한다.

모로코는 레드 와인의 생산량이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로제 와인이 20%, 화이트가 2~3%로 적은 양이다. 재배되는 품종으로는 까리냥, 썬소, 알리칸테, 그르나슈,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의 레드 품종과 클레넷 블랑쉬, 무스캇, 샤르도네, 슈냉 블랑, 소비뇽 블랑의 화이트 품종이 있다. 레 셸리에르 드 메크네스 와이너리는 KWC 2019에 8종을 출품하여 골드, 실버 메달을 골고루 수상하였다. 레 셸리에르 드 메크네스는 현재 미수입이다.



ROMANIA

루마니아 역시 세계 와인산국의 하나로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중세 때 삭손(Saxon) 계열의 이주자들이 루마니아에 유입하면서 포도의 재배, 와인의 양조 기술을 함께 들고 왔고 이 무렵 독일 계통의 포도종도 유입이 되었다. 1880년 이곳도 필록세라의 역질에 모든 포도밭이 황폐화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면서 프랑스 등 서유럽 쪽의 글로벌 포도종 즉 메를로, 샤르도네, 삐노 누아 등의 포도종이 들어와 대체되었다. 1989년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루마니아도 새로이 와인 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와인산지는 노던 몰도바(Northern Moldova), 중앙 몰도바(Central Moldova), 문테니아(Muntenia), 올테니아(Oltenia), 다뉴브 평원(Danub Plain), 도브루게이(Dobrogea), 트란실바니아 평원(Transylvania Plateau), 바나트 언덕(Banat Hills)의 8개로 나뉜다. 재배되는 품종으로는 페테아스카 레드와 화이트의 변종으로 가장 널리 분포되고 있다. 이밖에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삐노 누아,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이번 KWC 2019에는 수입사 아영 FBC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드레아스카(Budureasca) 와이너리에서 6종을 출품하였다. 이중 부드레아스카 까베르네 소비뇽 바인 인플레임(Budureasca Cabernet Sauvignon Vine In Flames), 부드레아스카 페테아스카 네아그라(Budureasca Feteasca Neagra), 부드레아스카 타마이오사 루마네스카 프리미엄(Budureasca Tamaioasa Romaneasca Premium)이 실버 메달을 수상하였다.

MOLDOVA

몰도바는 5,000년 전부터 와인이 생산된 나라이다. 대륙성 기후를 보이는 몰도바는 흑해와 가까워 여름이 길고 따뜻하다. 겨울도 비교적 춥지 않아 포도 생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몰도바는 크게 네 지역으로 와인산지 지가 나뉜다. 북부의 발티(Balti), 중앙의 코드루(Codru), 남동부의 푸카리(Purari), 남부의 카홀(Kahul) 지역으로 남부 지역과 남동부의 푸카리가 이름난 곳이다.

와인산지의 위도는 부르고뉴 등 유럽의 유명 산지와 같이 대부분이 46~47°에 위치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124,200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의 삼분의 일이 와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몰도바에서 재배되는 주요 토착품종에는 페테아스카 알바(Feteasca Alba), 페테아스카 레갈라(Feteasca Regala)의 화이트 품종과 페테아스카 네아그라(Feteasca Neagra)의 레드 품종이 있다. 이밖에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알리곤편, 삐노 누아,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말벡, 사페라비 등이 있다. KWC 2019에는 WS통상에서 수입하고 있는 크리코바 삐노 누아 엑스트라 브뤼(Cricova Pinot Noir Extra Brut), 카스텔 미미 클래식 메를로(Castel MiMi Classic Merlot)가 각각 골드와 실버 메달을 수상하였다. ㄱ

